

CHINA

중국 콘텐츠 산업동향

CONTENTS INDUSTRY TREND OF CHINA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사무소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주간 심층이슈

『글로벌 문화산업 펀드 조성에 따른 중국 투자방안』

◎ 작성 취지

- 중국의 문화산업정책 및 문화산업펀드의 발전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중국의 문화산업정책 및 문화산업펀드의 발전현황을 파악하고 한국 글로벌 문화산업펀드의 발전방향 탐색 및 한중 합작펀드 조성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함

※출처 : 14, 15회 치코멤버십 포럼 발표문

◎ 작성 순서

1. 「중국의 문화산업 정책」
2. 「중국 문화산업펀드 개황」
3. 「글로벌 문화산업펀드의 중국 내 운용방안」

1. 중국의 문화산업 정책

■ 중국의 문화산업 정책

- 중국의 문화산업이 경영성(영리성)의 문화사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점은 2002년으로 중국 공산당 16차 전당대회 당시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구분하기로 결정. 10여년의 산업화 역사를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정치적 성격의 문화사업이 영리 목적의 문화산업으로 구조변화 및 인식변화를 이루기에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
- 중국정부는 지역, 부문의 장벽을 타파하고 합병, 연합, 조직 재조성 등을 통해 대형 문화기업/그룹을 육성함. 문화산업의 규모화, 집약화, 전문화를 추진하고 대

형 국유문화기업/그룹의 합병을 격려하며 다매체문화기업/그룹을 형성함

- 문화 시장 경쟁질서의 규범화 및 민영/외자 진입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문화산업의 구조조정과 품질을 제고함

■ 정책이 주는 시사점

- 중국 내 시장 경제체제 도입에 따른 “사회주의 정치체제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정 및 실행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정치 체제에 위협 가능성이 있는 분야 및 내용에 대해 철저히 통제하고 있음
- 문화산업은 관광, 정보통신, IT등과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오염/저자원 소모산업이며 국민소득 증가추세에 맞춰 성장 가능한 최적의 산업으로 중국 정부는 내수 소비시장 확대 및 고급인력 취업률 제고, 3차산업 중심의 사업 구조조정 등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중국 문화산업 육성 정책의 수혜자는 “국유대형기업“, “국유기업→민간기업“ 으로 국유의 성격을 배제한 민간기업은 정책, 금융지원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정부의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문화산업의 전반적인 사업 역량이 부족하고 시장화 정도나 자본화 수준이 미약하기 때문에 해외업체와의 협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 주로 문화 콘텐츠 기획 역량,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해외시장 공동 개척,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
- 그러나 문화산업 관련 외자법인설립 및 면허취득에 대한 제한 요소가 많아 지속 사업기반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외자, 해외기업이 합자/합작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있음
- 합작 사업 진행시 중국 정부의 관여 및 허가사항이 많고 시장의 불투명성이 높아 중국측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가 불가피한 반면, 자금/회계 관리, 대정부 공관비용, 독단적 의사결정 습관 등에 대한 중국 파트너의 신뢰성이 낮다는 문제점도 있음

■ 한국 콘텐츠산업의 중국 진출

○ 한국 콘텐츠기업 진출 문제점

- 중국의 문화산업시장은 성장률은 높으나 아직까지는 GDP대비 시장규모가 작은 편임. 성장/개발 공간은 크나 실제 시장은 낙관적인 관점으로 보기 힘든 상황임
- 수많은 외국의 기업 및 프로젝트가 중국에 진출했으나 실제 수익률이나 수익규모는 크지 않음. 심지어 한국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가 거의 없고, 중소기업 또는 단순 콘텐츠 판매 등 일회성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일고 있는 반한류 성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각국 정부의 자국 문화산업 육성 정책 및 해외 문화 규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중국은 외자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기업의 중국 정부의 모호한 정책과 인/허가 과정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중국 시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중국 진출에 대한 공포는 더욱 확산되고 있음

○ 한국 콘텐츠기업 진출 전략

-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진출에 대한 근본적인 마인드 혁신이 필요함
- 해외 여타 문화기업과 같이 ‘합자/합작’ 형태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단기 수익목표를 추구해야함. 프로젝트 수행 과정을 이용하여 중국 현지에서 지속 성장거점을 구축, 이를 위해 중국 시장 및 산업에 정통한 인력 양성이 핵심 과제임
-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함. 각 장르별 연합회 형태를 구성하여 정보교류, 공동 프로젝트 개발, 대정부 협상능력 개선 및 장르별 벨류체인에 공동 진출을 추진하는 등 중국 및 해외기업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규모 확대” 방안을 찾아야 함

- “한국 중심” 이 아닌 “시장 중심” 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반한류를 극복할 필요성이 있음. 한국인과 중국인의 정서적 공감대 구축이 가능하며 정치적 민감성이 없는 주제, 중국인들이 정서적으로 수용가능하고 글로벌화 가능한 주제를 개발해야 함
- 중국 진출에 대한 가장 큰 리스크는 중국 시장 및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불명확성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현실적 대안은 우수 파트너 발굴과 인재 양성이라고 볼 수 있음. 특히 중국에서의 인력 양성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중국 현지인의 경우 회사에 대한 로열티 확보 방안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함

2. 중국 문화산업펀드 개황

■ 중국 문화산업 현황

- 2009년 중국의 GDP는 33.5만 억 위안을 달성함. 문화산업규모는 2만 억 위안으로 총 GDP의 6%에 해당. (선진국의 경우 문화산업이 총 GDP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중국의 문화산업은 매년 4만 억 위안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적어도 매년 2만 억 위안의 발전 가능성이 있음

표 1 | 2005-2009년 중국문화산업 성장속도

연도	GDP 성장속도	문화산업 성장속도
2005	10.4%	26.2%
2006	10.7%	21.5%
2007	11.4%	25.2%
2008	9.0%	18.5%
2009	8.7%	17.0%

자료출처 : 《문화란피수(文化藍皮書) : 2010중국문화산업발전보고》

■ 중국 문화산업 펀드 현황

- 중국은 문화산업 융자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선진자본시장의 “산업

투자펀드“ 운영 모델을 참고하여 문화산업펀드를 조성함. 발기인은 모집방향을 설정하고 전문기구에 위탁하여 펀드자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주로 주권투자 방식으로 운용함.

- 중국의 문화산업펀드는 실업(实业)투자, 즉 산업투자로서 고성장형 문화산업기업에 투자함. 또한 기업의 전략 경영에 관한 지도역할을 함. 기업이 어느정도 성장한 후 투자를 회수하여 가치절상을 실현, 차기투자를 계획하는 식으로 진행함
- 문화산업펀드는 크게 투자방향이 다원화되어 있는 종합문화산업투자펀드와 투자방향이 단일화되어 있는 전문문화산업투자펀드로 나뉘며 현재 중국에서 조성된 8개의 문화산업펀드가 종합적 성격을 띠고 있음

○ 문화산업펀드의 발전과정

▣ 표 2 ▣ 문화산업펀드의 발전과정

시기(년/월)	내 용
2008	4 문화부: 문화체제 개혁방안 및 6개 조치 발표
	4 화인문화산업투자펀드(华人文化产业投资基金) 설립
2009	5 동방성공문화펀드(东方星空文化基金) 설립
	7 국무원 《문화산업진흥규획(文化产业振兴规划)》 통과
	9 문화부 《문화산업발전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加快文化产业发展的指导意见)》 발표
2010	1 판청문화창의산업펀드(泛城文化创意产业基金) 설립
	4 강소자금문화산업발전펀드(江苏紫金文化产业发展基金) 설립
	5 중국문화산업투자펀드(中国文化产业投资基金) 설립
	6 화영소주문화산업펀드(华映苏州文化产业基金) 설립
	8 중국염제발전펀드(中国炎帝发展基金) 설립

○ 문화산업 융자난의 원인

- 문화기업은 주로 판권, 지적재산권 등 질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수익에 대한 예측이나 리스크 평가가 어려움
- 금융기구는 유형자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전통방식을 고수하고 있음.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 질 담보대출 및 기타 파생 금융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함
- 문화기업은 기업제도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신용기록이 미비하기 때문

에 금융기구가 문화기업의 리스크를 판단하는 있어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기구가 문화기업의 경영실태를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존재함

3. 글로벌 문화산업펀드의 중국 내 운용 방안

■ 중국의 특수성 반영 필요

- 글로벌 문화펀드가 중국에서도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 중국의 문화/금융 산업의 현실(진입 제한 및 규제)을 감안한 글로벌펀드의 중국 투자 규모 및 운영방안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 라인 설정이 필요함
- 중국내에서 한국투자자금을 이용한 우수 글로벌 프로젝트 개발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중국 내 문화산업 투자펀드 규모는 2010년 약 5조원 수준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예상할 수 있음. 중국측 입장에서 외자 투자를 받을 경우, 환전/외자 제한 등 귀찮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자투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큼. 또한 중국의 대형 국유기업의 경우 문화 콘텐츠 투자유치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외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콘텐츠 투자는 대부분 중소형 기업이며 이들은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음
- 대부분의 투자가 영상(영화, 드라마, 애니 등) 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 현실적으로 글로벌 펀드에 참여하는 민간 투자자는 대형 영화 유통사가 될 전망. 영화 외 장르에 대한 투자를 20%이상으로 지정하여 투자 의무화를 시행해야 할 상황임. 그러나 영상 분야이외에 투자자의 관심을 끌만한 대형, 수익성 프로젝트 발굴이 매우 어려움
- 중국에 비해 일본, 미국의 콘텐츠 시장 규모와 수익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글로벌 펀드 조성 이후 중국으로의 투자가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큼. 중국은 문화산업 초기 시장으로 펀드 측면에서 단기 수익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중국투자를 기피할 가능성이 큼.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문화산업, 금융산업(투자)에 대한 외자 진입 규제가 매우 엄격하며 중국 정부의 문화산업 진흥정책으로 인해 현재 중국 내에도 문화산업 투자펀드 조성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글로벌 펀드 운용에 대한 제언

- 글로벌 문화펀드가 한국 콘텐츠 산업의 중국 진출 확대를 지원하려면 중국 투자펀드를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중국 현지 문화펀드와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현지 운용사에 수익을 제공하고 펀드 규모의 확대 추진. 중국 투자펀드에 대한 별도 기준을 적용하면 타 국가와의 경쟁을 막을 수 있으며 중국 투자 활성화가 가능해짐
- 중국 현지 “문화산업펀드”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펀드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고, 현지 문화펀드의 한국기업 투자를 유도할 수 있으며 우수 프로젝트 발굴, 우수 파트너 발굴 및 투자 자금의 EXIT등 금융 지원이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음
- 글로벌 문화펀드의 우수 프로젝트 투자를 한국 기업의 중국 현지 역량 육성의 기회로 제공해야함. 1회성 프로젝트 성격의 투자는 현지에서 한국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투자를 매개로 동종 업계의 한국 업체 간 연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중견 콘텐츠 기업이라고 해도 시장 개척, 프로젝트 개발의 부담을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연합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여 중국 현지 체력강화 및 대형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개발 할 수 있음
- 현시점에서 중국에 진출 가능하며, 향후 문화산업 진출의 거점 인프라가 될 수 있고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함. 예를 들면, 디자인, 시장 중심의 콘텐츠 기획, SW개발, 문화산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광고, 애니(완구)사업 등을 들 수 있음